

고흥군,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참가

郡, 드론·UAM 최적의 인프라 홍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고척 스키아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해 전시관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토부 주최, 항공안전기술원·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으로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 대기업 등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101개의 기관 등이 참가해 관람객에게 전시관, 드론레이스, 드론축구, 드론체험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고흥군은 국토부로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받은 15개 지자체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고흥군의 미래전략사업인 드론·UAM 산업 인프라와 기업 지원정책에 대하여 홍보했다.

고흥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비행 공역(직경22km, 고도450m, 면적380km²)과 고흥드론센터, 고흥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K-UAM그랜드챌린지 테스트베드 지정 등 최적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5G 드론스마트영농실증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어 전시부스를 찾는 기관·기업 관계자 및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고흥군은 드론관련 기업을 지속 유치하고 내년부터 고흥 드론박람회 개최, 녹동 인공지능 드론 라이브쇼 개최, 드론 전문학교 신설 등을 추진해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드론시장을 확고히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고척 스키아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해 전시관을 운영했다. /고흥군 제공

해남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지급

해남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가로수, 담장, 승강장 등에 불법 게시된 벽보나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문(명함형 전단지 포함) 전단지 등을 회수해 제출하면 읍면에서 확인 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로서 만 65세 이상 주민 및 저소득층 또는 관내 중·고등학생이다. 단 해남군에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읍면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지급된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지참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사항 기재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1인 월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해 깨끗한 거리 조성은 함께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내달 4일 종료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19일 기준 보성군의 신청접수 건수는 3천99건 4천124필지로 2천742건 3천654필지를 완료했으며, 오는 8월4일까지 신청접수 건은 2023년 2월 6일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나

법무사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만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중수 기자

장흥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장흥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적립금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

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천440만원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

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1억7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소득기준(월 50만원~200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선정된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으뜸마을 평가 실시

완도군은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91개 중 지자체 심사로 선정된 5개 마을(완도읍 향동, 금일읍 월송, 약산면 여동, 금당면 울포, 보길면 중리)을 대상으로 전남도 으뜸마을 평가단의 현장 방문 이미지 평가가 실시됐다.

이번 이미지 평가는 전남도 자치행정과장 및 자치분권 팀장, 외부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 평가단이 마을을 방문해 진행했다.

평가 대상지 중 금일읍 월송마을은 마을 회의를 통해 월송해송팀 주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고, 매주 주민들이 해변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금당면의 울포마을은 울포항 방파제 주변에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을 두어 주민 쉼터를 마련했고, 아간 조명까지 설치해 평가단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백나영 기자

진도군, 응급처치 이론·실습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진행

진도군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비롯 군민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이번 교육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시 응급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이론과 실습 위주로 실시됐다.

심정지 등 응급 환자 발생 시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4분 안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

/이현일 기자

